

TV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연구

- 정서적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백경선*

<차례>

1. 들어가며
2. 이야기와 인물 구조
3. 정서 구조
4. 나오며

1. 들어가며

<꽃보다 아름다워>¹⁾는 2004년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KBS 2TV를 통해 방영된 30부작 수목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바람 잘날 없는 집안에서 바보스럽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순박한 엄마와 그 자식들이 일구어 가는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환기시켜주었다. 또한 이 드라마는 그동안 <거짓말> ·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 <바보 같은 사랑> 등으로 ‘마니아 드라마 작가’라거나 ‘배고픈 명예’ 등으로 수식돼왔던 노희경 작가의 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²⁾ 평균 시청률 20%에

* 한양대 박사과정

1) 극본 노희경, 연출 김철규 · 기민수, 출연 고두심 · 배종옥 · 한고은 · 주현 · 김홍수 · 박상면 · 김명민 외

2) 지난 2001-2002년 SBS 주말극 <화려한 시절>도 평균 시청률이 두 자리 수를 넘

가까운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사실, 가족 간의 이야기는 주말드라마나 일일연속극 등에서 수도 없이 다뤄진 내용이다. 따라서 소재의 측면에서 보면, <꽃보다 아름다워>는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기존의 가족 드라마와는 사뭇 달랐다. 문제투성이에다가 공상맞기까지 한 우리네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³⁾ 시청자 게시판에는 ‘내 이야기, 혹은 우리집 이야기 같아서 많이 울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⁴⁾ 재벌 2세와의 사랑 현실에선 존재하기 힘든 신데렐라의 후예들, 출생의 비밀, 현실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마냥 코믹한 등장인물,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철저히 악인이 되는 조연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연속 등 ‘드라마 속에서만 존재하는 세계’에 거부감을 갖던 시청자들에게 <꽃보다 아름다워>는 ‘현실감 있는’ 드라마로 다가온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드라마가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

으며 꾸준한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최고 시청률이 29.5% 를 기록했던 <꽃보다 아름다워>의 인기보다는 못했다

- 3) 모든 가정은 밖에서 보면 아무 일 없는 거 같아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다. 자식과 부모의 헤게모니는 시시때때로 전복되고, 자매와 형제는 선망과 질투가 뒤섞인다. <꽃보다 아름다워>는 그런 가족의 징글징글한 속성을 신랄하게 보여주었다. 서병기, 「노희경 드라마의 매력은?」, 『스포츠서울』, 2004.4.13. ‘가족’이라는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던 이야기가 이토록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원인은 뭘까. 연기자들의 열연과 심지어 굳은 연출력의 결과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정그럽게 사실적인 대본에 있다. 끊임없는 상처의 원천인 동시에 유일한 위안처인, 인생의 걸림돌이자 때로 징검다리인 가족. <꽃보다 아름다워>는 특별할 것 없는 한 가족의 남루하고 답답하고 고단한 사정을 마치 ‘우리집’ 대문 안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수진, 「바람 잘날 없는 가족 아픔에도 향기는 있다」, 『문화일보』, 2004.4.14.
- 4) 진짜 이야기 같네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진솔하고 몽클한 이야기요. 민정현님, 드라마마다 딴 세상 사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은데, <꽃보다 아름다워>는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 너무 좋습니다. 마경복님, 특히, 고두심 연기자님이 연기하실 때는 꼭 우리 엄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눈물 많이 흘리며 봤어요. 권기숙님 등.

하면 “대부분의 시청자는 TV드라마의 내용을 현실적이라고 느껴야만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여”⁵⁾하기 때문이다. 영화나 연극의 경우, 다소 비현실성이 심하더라도 극장 안 자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극장이라는 특수 공간이 그것을 상쇄하면서 관객을 스크린과 무대의 세계로 몰입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가정이라는 열려 있는 공간에서 보는 TV드라마는 비현실성이 들어오기 곤란하다. 우리의 일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TV 드라마는 픽션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시청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독특한 자기 길을 모색한다. 그것은 바로 일상과의 호흡이며, 작품의 흐름과 현실의 흐름 사이에 거리와 시차를 없애는 노력이다.⁶⁾

드라마의 현실감은 경험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정서적 차원)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얻어진다.⁷⁾ 그런데 아무리 드라마가 내 이야기 같더라도, 드라마는 단지 허구 세계일뿐이다 때문에 경험적인 현실성을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주로 정서적인 현실성이 획득되어야 드라마에 대한 리얼리티를 충족할 수 있다. 더욱이 TV란 매체가 본질적으로 논리보다는 감성으로 접근하는 매체이며, 그런 TV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TV 드라마는 상당 부분 정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청자가 TV 드라마의 내용을 현실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대부분 정서적 차원의 문제이다. “TV 드라마에서 재현된 허구의 세계가 아무리 상투적이고 진부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청자의 정서적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그것은 ‘진짜 현실’이 된다. 반면에 개연성을 무기로 그럴듯한 상황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시청자의 정서적 반응이 부정적이면 그것은 ‘가짜 현실’로 전락”하고

5)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reality) 확보 방식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제1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 322면.

6)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예술론』, 나남출판, 1994, 55면과 106면 내용 참조.

7) 손병우,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의 정서의 한 흐름」, 『외국문학』 1995년 봄 131면.

마는 것이다. 이처럼 TV 드라마의 현실성은 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청자의 정서적 태도에 따라 결정”⁸⁾된다.

이와 관련해 이안 앵(Jen Ang)은 미국 드라마 <댈러스>⁹⁾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댈러스>를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과는 달리,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분석한다. <댈러스>의 팬들이 지시적 의미의 수준에서 드라마를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지만, 함축적 의미의 수준에서는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을 앵은 ‘정서적 리얼리즘(emotional realism)’이라고 규정한다. 그녀에 따르면, <댈러스>의 팬들이 경험하는 리얼리즘은 인식적·합리주의적 수준과 무관하며, 그것은 정서적인 차원에 머무른다. 또한 앵은 <댈러스>의 팬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리얼리즘은 ‘비극적 정서의 구조’에 기인하며, 이 비극적 정서의 구조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 사이의 끝없는 변화’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앵은 사실적이라고 경험되는 것은 무엇보다 그 드라마가 일으키는 어떤 ‘정서의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¹⁰⁾

‘정서 구조(structure of feeling)’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레이몬드 윌

8) 윤석진, 위의 글, 322 ~323면

9) 1978년 4월부터 1991년 5월까지(총 356회) 방영된 <댈러스>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미국 연속극으로, 두 석유 부호 가문인 유잉과 반스의 갈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아들과 딸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댈러스>는 그 인기가 절정일 때 90개국에 수출되어 매년 시청자가 2억 명에 달했고, <다이너스티>를 비롯해 수많은 모방 작품을 낳았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인기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비논리적인 전개와 리얼리티의 결여를 문제 삼아 텔레비전의 아둔함을 지적할 때 꼭 <댈러스>를 언급하곤 한다.

10) Jen Ang, Translated by Della Couling,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and New-York, 1985, 41-46면. 그런데 앵은 수용자가 구성하는 정서적 경험을 비극적 정서의 구조라는 하나의 경험으로 제한함으로써 <댈러스>를 통해 수용자가 형성해내는 다양한 공유된 경험들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험적 수용미학’을 위하여』,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미학·해독』, 문경, 2005, 152면).

리엄스(Raymond Williams)이다. 윌리엄스는 기존의 맑스주의 문화론자들이 문화와 사회를 대체로 과거시제를 통해 분석, 기술하는 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방법은 경험을 완료된 산물로 변환시키며, 형성중인 문화 과정을 이미 형성 완료된 통일체로 환원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즉, 형성 과정에 있는 현존재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서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윌리엄스는 정서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뚜렷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사회적인 의미의 구성물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경험이 용해된 것”, “사회적 경험과 관계의 특유한 성질로서, 한 세대나 한 시대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 “상호 연관적이면서도 긴장관계에 있는 특정한 내적 연관을 지닌 하나의 구조”,¹¹⁾ “모든 실제 공동체의 심원에서 광범위하게 소유된 것으로, 정확하게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의존하고 있는 것.”¹²⁾

이상 윌리엄스의 정의들을 정리해 보면, 정서 구조란 한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의미와 가치의 체계를 뜻한다.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그와 유사하게 이해되고 있지만, 이 개념들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서 정리된 체계인 반면 정서 구조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윌리엄스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정서 구조를 ‘TV 드라마와 그것을 공유한 시청자와 그리고 현실사회가 만나는 접점으로서, 소통과 교감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 체계’로 이해한다.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가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이성보다 감정과 이미지가 더 대중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게 된 지금, “현실은 인간이 자신의 형식으로 질서를 부여하고 주관적으로

11) 레이몬드 윌리엄스, 이일환 옮김, 『이념과 문학Marxism and Literature』문화과지성사, 1982, 160-169면

12) Raymond Williams, *Long Revolution*, 1961, 64면.

해석한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¹³⁾다. 여기서 ‘인간 자신의 형식’이란 세계관이나 사회구조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세계관이나 사회구조에 관한 것은 유보하고, 주로 윌리엄스가 말한 정서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시청자들이 정서 구조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실적이라고 경험하는 것’을 정서적 리얼리즘이라고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지금부터 <꽃보다 아름다워>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리얼리즘은 과연 어떠한 정서 구조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야기 구조와 인물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서 구조를 해석하고, 아울러 등장인물들의 정서 구조를 따라 발생하는 시청자들의 정서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이때 시청자들의 정서 구조는 <꽃보다 아름다워>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청 소감(2003. 12. 24 ~ 2004. 8. 4, 총 15,104 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수용자 반응 분석이라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드라마가 끝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시청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이야기와 인물 구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먼저 이야기 구조와 인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 이도흠, 「예술텍스트에서 현실의 재현과 진실 사이의 거리 문제」, 한국언어문화학회 발표 자료집 『문화변동기, 인문학의 새로운 좌표』 2004년 봄 41면과 42면

2.1. 이야기 구조; 극 초반에 비밀 폭로

<꽃보다 아름다워>는 한 마디로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다. 바보 같은 엄마, 천사 같은 엄마인 주인공 영자는 자식 넷을 두었는데 하나 같이 문제이다. 큰딸 미옥은 이혼했고, 큰아들 재식은 가슴에 대못을 박고 황천길로 떠났으며, 셋째 미수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고, 막내 재수는 형을 죽인 원수를 잡겠다고 나이트 호객꾼으로 청춘을 낭비한다. 게다가 남편 두철은 바람이 나서 아들까지 낳은 채 딴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 영자는 이러한 상처들을 묵묵히 가슴에 묻어두고 끝없이 사랑을 베풀기만 한다. 그러다 영자가 치매에 걸리고, 그간의 삶을 보상 받기라도 하듯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드라마는 끝난다.

이 드라마의 주요 이야기와 부차적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영자와 자식들의 사랑
		미옥과 영민의 사랑→장애 극복→결혼
		미수와 인철의 사랑→이별
		재수와 지니의 사랑→이별→재회
	용서 이야기	아버지와의 갈등→화해
		재식을 죽인 범인 찾기→용서
부차적 이야기		고모네 이야기

연출자 김철규는 미수가 오빠를 죽인 인철과 사랑에 빠진다는 작위적인 설정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작진은 30부를 이끌어 가는 드라마 특히 가장 경쟁이 심한 시간대의 드라마를 가족들의 이야기만으로 이끌어 가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청률 면에선 이 설정의 덕을 본 부분이 많다

는 것을 인정했다. 정작 시청자들은 제작진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이 작위적인 설정조차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오히려 드라마에 더욱 몰입했던 것이다.

이처럼 미수와 인철의 작위적인 관계 설정이 시청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은 것은 극 초반부터 그러한 작위성에 얽힌 비밀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초반부터 영자의 핸드폰에 붙어 있는 죽은 재식의 사진과 인철의 회상씬 등을 통해 ‘인철이 재식을 죽였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폭로한다. 이로써 처음부터 비밀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작가와 공범자가 된다. 그리고는 비밀이 드러났을 때의 미수와 인철의 관계에 대해 예견하고 긴장¹⁴⁾하면서 드라마에 몰입하게 된다.

시청자들은 감정적으로는 미수와 인철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사랑과 도덕(혹은 가족)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수와 인철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인철과 미수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앞으로는 “드라마에 절대 몰입하지 않기, 극중 인물에 마음 주지 않기”(박미정¹⁵⁾로 다짐까지 한다.

“제발, 미수와 인철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드라마는 결국 시청자들을 ‘교섭적 냉소적 위치’¹⁵⁾로

14) 인철이 재식을 죽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시청자는 ‘이중의 긴장’을 경험한다. 미수가 오빠를 죽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의 긴장과 등장인물이 의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견하는 담화상의 긴장을 경험하는 것이다.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0, 71 면 참고

15) 리빙스톤(S. Livingstone)은 영국의 인기 소프라 오페라 <코로네이션 거리>에서 하나의 낭만적 에피소드를 시청자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해독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네 가지 해석적 위치(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낭만적 위치’, 사랑보다 가족관계와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냉소적 위치’, 가족관계나 도덕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사랑을 보다 강조하는 ‘교섭적 낭만적 위치’, 반대로 사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가족관계나 도덕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이끌고 간다.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미수는 인철을 사랑한다며 가족들이 자신을 버려줬으면 한다고 미옥에게 말한다. 그런데 인철과 함께 떠나겠다던 미수는 끝내 가족을 버리지 못한다.

그날도, 이후에도, 미수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인철을 떠나보낸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미수가 채식에 기억하는 한, 인철을 웃으면서 볼 자신이 없었다는 걸 가족이란 울타리는 그렇게 사랑이 전부라고만 믿는 이기적인 미수의 발목까지도 끈질기게 붙들어 댔다. 그때 미수에게 가족은 올가미였겠지만, 나는 안전띠라 믿었다

- 28회, 씬 25 미옥의 나레이션

미옥의 말처럼, 채식에 대한 기억이 있는 한 미수와 인철은 함께 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그들의 이별에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

아무리 용서하더라도 잊혀질 수 없는 기억 때문에, **저는 미수와 인철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커플이 가장 좋지만... 그리고 그들의 예고된 이별에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 이해림님 시청 소감 中

정말 제가 미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싶겠죠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면, 둘이 떠나서라도 사랑을 이루고 싶겠죠. 외로운 인철이를 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혼자 떠나면 인철이는 앞으로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

‘교섭적 냉소적 위치’-를 찾아내고 있다. 주창윤, 앞의 글, 163면에서 재인용.

에게 아들을 죽게 한 친구를 사위로 맞으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인철을 볼 때마다 가족들은 재식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겠죠. 용서하고 화합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지만, 인철을 보면서 재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될까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고의든 아니든, 가족을 죽게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여럿 있더군요. 주인공들은 사랑을 이루려고 하고, 또 결론도 그렇게 나는 듯 싶더군요. 본인 입장에서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과연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미수와 인철은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 같더군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워>는 가장 현실적인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황미나님 시청 소감 中

이처럼 이 드라마는 극 초반부터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시청자들을 도덕(혹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시청자들을 ‘교섭적 냉소적 위치’로 이끌고 가면서 정서적 현실성을 얻는다.

한편 이 드라마는 극 초반에서 비밀을 드러냄으로써 “사건들은 최소화되어 인물의 심리나 성격, 상태를 나타내는 예증적인 역할로 감소되어 간다.”¹⁶⁾ 그로 인해 드라마는 사건보다는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인물 지향적이 된다. 따라서 이 드라마를 분석함에 있어 인물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2.2. 인물 구조; 환유적 인물 관계

대부분의 트렌드드라마에는 시청자들의 결핍 요소를 충족해 주는 ‘잘난’ 혹은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 잘나고 특별

16) 시모어 채트먼, 앞의 책, 5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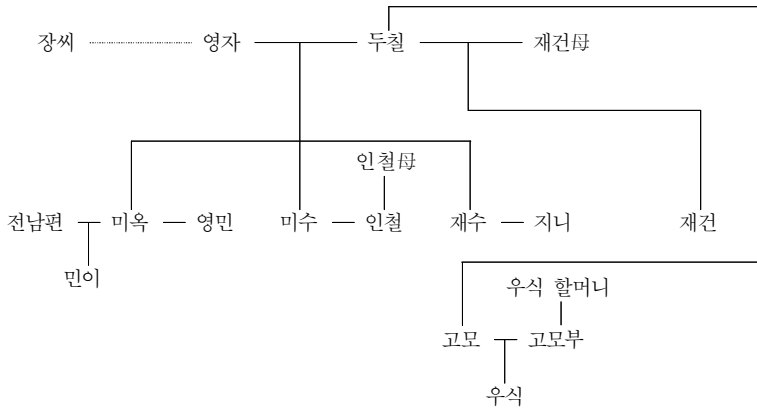
한 인물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인물들이 나온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영자를 두고 ‘우리 엄마 같다’든지, 미옥이를 두고 ‘우리 언니 같다’면서 드라마 속 인물들에게 공감을 느낀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시청자들은 영자란 캐릭터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영자는 아이처럼 어눌하면서도, 어쩔 땐 말하는 것이 득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남편을 빼앗아 간 여자에게 신장까지 내준다. 시청자들은 그런 영자를 보면서 ‘현실에 저런 인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영자 캐릭터의 일부분만을 본다면, 그런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영자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지 낯설지만은 않다. 우리들의 엄마도 자식들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착하더라도 자식과 관련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¹⁷⁾ 가끔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하고, 고통을 가슴 속에만 묻어둔다. 영자 캐릭터는 모든 엄마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보편성 위에 특수성을 적절하게 배치시킴으로써 탄탄한 캐릭터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덕분에 비현실적이라고 느낄만한 영자의 특성 또한 ‘영자라면 저럴 수 있다’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 인물에 공감을 하고 동일시를 느낀다는 것은, 고립된 하나의 인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이야기 구조 내에서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 놓인 인물에 대해서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드라마의 인물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에 앞서 이 드라마의 인물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17) 영자는 이혼한 미옥이가 총각, 그것도 대학 강사 영민이와 사귀는 것은 미옥이가 득이니까 괜찮고, 잘 나가는 미수가 한 번 결혼했던 인철이와 사귀는 것은 미수가 손해라 안 된다고 한다.

[<꽃보다 아름다워>의 인물 관계도]



위 인물 관계도에서 (1)우식이 할머니와 고모부 - 영자와 자식들, (2)미옥·전남편·영민·영자·두철·장씨, (3)인철모와 인철·영자와 자식들 (4)미수와 인철·재건모와 두철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우식이 할머니와 고모부 - 영자와 자식들의 관계를 보자. 치매에 걸려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이가 돼버린 어머니를 지극 정성 돌보는 고모부. 고모부는 우식 할머니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일방적으로 베풀다 힘들지만 어머니니까, 그런 엄마라도 옆에 있어 마냥 좋다는 고모부를 재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재수에게 있어 엄마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모부와 우식 할머니를 보면서 재수는 “설마 우리 엄마는 저렇게 되지 않겠지” 하다가 고개를 흔든다.

어느 날, 영자는 망령이 든 우식 할머니로부터 오히려 자신이 망령이 났다는 소리를 듣는다. 망령 든 할머니가 한 말이니 그냥 지나치면 될 것을 영자는 유난히 화를 낸다.

내가 무슨 망령이 나! 할머니가 망령 났지!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자식도 사돈도 못 알아보고, 망령은 할머니가 났지, 내가 왜 나 ... (중략... 내가 자식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재미로 사는데 할머니처럼 되면 아무것도 못해주고 짐만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자식한테 짐 되는 거 정말정말 싫어! ... (중략... 나는 할머니 다른 병은 다 걸려도 할머니같이 망령은 안 날거야. 절대 안 날거야. 호두 많이 먹어가지고 절대절대 그 병 안 날거야.

- 23회 씬 32 엄마의 대사 中

결에서 지켜보던 고모와 고모부는 평소 ‘화내는 성질이 아닌’ 영자가 치매 걸린 할머니 말을 듣고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의아해한다. 동시에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들도 영자의 행동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무언가 불안함을 느낀다.

그런데 바로 다음 회부터 그 불안함은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아래층에 가서 집이라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밤늦게 우식 할머니가 불러 고모네 집에 가는데 신발을 짹짹 신고 가거나, 고모네 집에 가서는 죽은 우식 할머니를 찾기도 하고, 급기야는 집을 못 찾아 파출소에 가 있는 등 영자의 이상 행동은 점점 심해진다. 결국 고모부의 권유로 미옥과 영민은 영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 그리고 병원에서 영자는 치매 판정을 받는다.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삶의 전부였던 영자는 치매에 걸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다. 우식이 할머니처럼 오히려 자식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아이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식이 할머니와 고모부는 영자와 자식들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자식이라는 측면에서 두 관계는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2)미옥·전남편·영민 - 영자·두철·장씨의 관계를 살펴보

자. 이 관계에서 전남편에게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지 못한 미옥은 두철에게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지 못한 영자와 닮았다. 그런가 하면 미옥과 영자는 차이도 보인다. 미옥은 능동적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영자는 두철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이혼을 한다. 영자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전히 남편 두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옥에게는 전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지 않다.

미옥은 새로운 사랑인 영민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영민과 결혼하기 위해 (결국 그 다음 날 데리고 오긴 하지만) 영민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딸 민이를 전남편에게 맡기고 돌아오기까지 한다. 미옥은 결국 영민과 결혼을 하고 영민으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여자로서의 행복을 누린다. 반면, 영자는 “나는 애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오빠 만나는 거, 안 할래”라면서 자식들 때문에 자신을 평생 사랑해온 장씨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둔 채 끝내 거부한다. 영자는 여자로서의 행복 대신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택하고, 자식들의 사랑으로 보상 받는다.

이와 같이 미옥과 영자는 사랑을 주지 않는 남자(전남편과 두철)와 사랑을 주는 남자(영민과 장씨)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그런 차이를 형성하는 기본 구조, 즉 사랑 받고 싶은 여자와 사랑을 주지 않는 남자와 사랑을 주는 남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옥·전남편·영민·영자·두철·장씨의 관계는 유사성을 지닌다.

앞에서 여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영자와 미옥을 비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인철 엄마와 영자를 비교해 보면서 (3)인철 엄마와 인철·영자와 자식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인철 엄마는 자식 상관 않고 수시로 남편을 바꾸면서 살아왔다. 이와 달리 영자는 장씨가 도망가자고 했을 때 자식들 때문에 그를 따르지 않았다. 이처럼 여자로서의 모습을 비교하면 인철 엄마와 영자는 다르다. 하지만 “엄마 그렇게 살면서 후회 같은 거 없느냐”는 인철의 질문에 “너한테 상처 준 거 빼곤 없어”라고 대답하는

인철 엄마 역시, 이 드라마에선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영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사랑하는 지니와 헤어지게 돼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재수에게 “니 얼굴에 밥풀 묻은 건 엄마가 떼줄 수 있어도, 맘 아픈 건 엄마가 어떻게 못 해주는데 어찌냐”면서 한숨쉬는 영자나, 미수가 재식의 동생이란 사실을 알고도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울먹이는 인철을 보며 눈물 흘리는 인철 엄마나, 자식 일로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똑같다.

인철과 엄마, 엔젤 엄마와 재수처럼 끈끈한 모자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다, 라는 생각이 어제 내내 들었다. 아들을 위해서 생전 안하던 음식도 배워서 손수 차려주고 다른 엄마에겐 당연할지 몰라도 인철 엄마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다) ... (중략... 밥상을 마주 대하고 꾸역꾸역 밥숟갈을 뜨는 아들을 보며 얼굴 숙이고 주룩룩 한 줄기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인철에게 있어서 그나마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엄마마져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재수 엄마만 엔젤 엄마가 아니고, 인철 엄마도 인철에겐 엔젤 엄마다.

. 김은신님 시청 소감 中

걱정거리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철 엄마와 영자는 권위적이지 않은 친구 같은 어머니라는 점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따라서 걱정거리 자식과 걱정하는 어머니, 그리고 친구 같은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측면에서 인철 엄마와 인철 - 영자와 자식들의 관계 또한 유사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4)미수와 인철 - 재건 엄마와 두철의 관계를 보자 인철에게 친구 이상의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 순간 미수는 혼란에 빠진다. “아버지보고 유부남이 바람 편다고 큰소리 친 주제에... 내가 유부남을 꼬셔... 미쳤지.” 그러면서 미수는 본인 스스로를 재

건모의 위치에 자리매김한다. 두철이 재건 엄마 때문에 영자를 버린 것에 비해, 인철은 미수 때문에 전부인을 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부인에게 상처 받은 인철을 미수가 사랑으로 감싸 안았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혼녀와 유부남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미수와 인철 - 재건 엄마와 두철의 관계는 유사성을 띤다.

또한 ‘가족이냐, 사랑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점에 있어서 미수는 두철과 비교될 수도 있다. 두철이 사랑을 택한 것에 비해, 미수는 결국 가족을 선택한다. 비록 이 역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족과 사랑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과 그를 그 선택의 길에 놓이게 만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미수와 인철 - 두철과 재건 엄마의 관계는 유사성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인물 관계는 (차이를 전제로 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인물 관계는 영자와 자식들 혹은 영자와 두철의 관계를 비추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각각의 인물 관계는 영자에게로 모아지면서 영자의 상처와 아픔을 더욱 극대화해 보여준다. 따라서 이 드라마의 인물 관계는 영자를 중심으로 ‘환유관계’¹⁸⁾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환유적 인물 관계로 인해 단 한 명의 인물도 이야기 궤도 밖에서 걸돌지 않으며, 인물 하나하나가 모두 주인공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더욱 더 인물 관계에 몰입하고, 영자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게 된다.

18) 본디 환유는 비유법 중의 하나로, 사물의 속성을 들어 그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환유는 어떤 사물을 지시하는 용어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 인물 관계들이 유사성을 통해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환유 관계라고 보았다.

3. 정서 구조

이번 장에서는 이 드라마에 나타나는 정서 구조에 대해 미움(원망)과 사랑의 혼재, 착함(善)에 대한 동경, 연민과 동정 유발 용서와 화해 지향 등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미움(원망)과 사랑의 혼재

이 드라마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에 대해 미움(원망)과 사랑의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사실, 미움은 사랑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이며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앞뒤면 같은 것이다.

▶영자 → 두칠¹⁹⁾

먼저, 영자와 두칠의 관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죄는 모른다고, 두칠은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전부 지엄마만 위하고, 지엄마 편만 든다”며 속상해한다 그리고 모든 탓을 영자에게 돌린다.

4회, 씬 45 엄마의 방 안

엄마, 아버지 마주 앉아 있는,

아버지: (속상한) 너는 맨날 애들 모아놓고 나 싫어하라고 갈치지?

(중략)

아버지: 야, 우리 말은 바른대로 하자. 막말로 니가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왜 살림을 나냐? 니가 재건엄마처럼 남자 맘 헤아려줄 줄 알고 잠자리에서든 어디서든 애교필 줄 알면, 내가 또라이도 아니고 널 왜 버려?

19) 화살표는 정서의 주체 방향을 나타낸다.

엄 마. (소매로 눈물 닦는) ...

아버지: 내가 마누라 얻었지, 곰탱이 얻었냐!

엄 마. ...

아버지: 인과응보라고, 니가 못했으니까, 내가 이리는 거야. 반성해, 이 여자야! 그리고 한 번만 더 애들 내 앞에서 소리치는 꼴 보기만 해, 그땐 내가 널 호적에서 빼버릴 테니까. (하고, 나가는)

엄 마. (눈물 닦고, 따라나가는)

위와 같이 두철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바보같이 참기만 하던 영자도 자신의 생일날 두철이 재건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만난 것을 알고는 폭발해버린다. 영자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않고 목포로 내려가 장씨를 만나 마음속에 사무친 응어리를 다음과 같이 토해낸다.

(장씨 보며, 눈가 그렇해) 엇그제 내 생일날 만났거든. (기가 찬 듯) 참 나도 벨 없지. 지금껏 하는 짓 뻔히 봐놓고도 뭐 잘해줄까 싶어 가지고 신이 나서 나갔으니... (허허롭게 웃으며) 나도 벨 없어, 참. (중략) (장씨 보며, 울지 않으려 애쓰며, 오기부리 듯) 같이 사는 여자가 콩팥이 나뻐 그렇다고 나한테 달래. 그래서... 내가... (크게 한숨 쉬고, 진정하고) 줄라고 (중략) (약쓰며) 줄 거야, 나는. (울며, 소리치는) **내 콩팥 가져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눈 뜨고 볼 거야!** 내 뱃속 가르고, 그것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볼 거야! (중략) **내가 죽으면** 그것들도 사람인데 가슴에 한 맺히겠지. 그렇게 해줄 거야. 한 맺히게 해줄 거야. 사람 가슴 속에 한이 맺히는 게 뭔지 알려줄 거야, 내가! 달라는 대로 줄 거야, 나는! 콩팥도 달라면 주고, 간도 달라면 주고, 허파도 달라면 주고... 뭐든, 내가 다 줄 거야. 그래서 내 거 다 가져가 지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하늘에서라도 내가 두고 볼 거야!** (하고 우는) (중략) 김두철이 미워.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하략)

- 14회, 씬 80 엄마의 대사 中

영자는 “내 콩팥 가져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눈 뜨고 볼 거”라고 죽으면 “하늘에서라도 두고 볼 거”라면서 원망과 미움을 쏟아낸다. 그리고 두철을 절대 용서 못할 거라고, 죽는 날까지 미워할 거라고 한다. 그러다가도 병원에서 두철이 “염치없는 말이지만은... 니가, 애들이 나를 용서해줬으면 하고 기도”하면서 접었다며 종이학을 주자, 이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리고는 그 종이학을 소중하게 간직한다. 마치 그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처럼.

▶ 영자 → 재건 엄마

남편을 빼앗아 간 재건 엄마에 대해서도 영자는 원망과 질투와 연민이 교차한다. 신장 이식수술 후 재건 엄마의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영자는 인철이 사다준 벨론을 하나 챙겨들고 재건 엄마를 찾아간다. 그런데 병실 앞에서 두철이 정성스럽게 재건 엄마의 손을 닦아주는 모양을 보고는 마음이 상한다. “내가 둘 다한테 좀 잘해줄라고 하는 맘이 생기다가도 저런 꼴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며 그냥 돌아선다.

그러다가도 두철이 자신을 걱정했다고 하자, 영자는 금방 마음이 풀려 재건 엄마를 보러 병실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재건 엄마에게 힘들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영자는 재건 엄마가 안 낫는 것은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신장을 안 주고, “죽어라 죽어라 니가 내 배 가르고 잘 살면 안 되지” 하는 못된 마음으로 독을 품고 수술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늘에 맹세코 그런 맘이 전부는 아니었”다며, “그런 마음도 듣다가, 재건이도 불쌍하고 안됐고, 재건 엄마 인생도 화나고” 그랬다는 것이다.

밥 많이 먹고 빨리 나오라고 바라다가도, 막상 나아서 퇴원을 하게 되자, 영자는 또다시 재건 엄마를 쌀쌀맞게 대한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

원에 갔다가 마주친 재건 엄마가 버스 타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따라오자, 영자는 짜증을 내며 “사람이 음흉하다”고 말한다 “자네도 나 보기 싫잖어. 싫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말시키고 잘해줄라고 하고 그래 만약 자네가 나 보기 좋다면 그건 돈 거야. 자네 돌았어?” 하고 상처를 준다 그 말을 듣고 재건 엄마가 죄송하다며 가자, 영자는 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서 재건 엄마를 불러 괜스레 “자네 집에 가는 버스 큰길 건너편에 있어, 알자?” 한다

영자가 재건 엄마에게 쌀쌀맞고 통명스럽게 대해도 모두 ‘그럴만하다’고 인정하고 공감한다. 그런데 정작 영자 본인은 재건 엄마에게 못되게 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속상하다. 그래서 우식이 할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하소연한다.

나두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재건 엄마한테 자꾸 말이 통명스레 나가는지 모르겠드라. 할머니도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모질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어. 근데 재건 엄마 보면, 자꾸 말이 가시가 박혀서 나가 재건 엄마가 우유 가져다 줄 때도 내가 그냥 뭐 진심은 아니래도 말이라도 고맙네 그러고 싶었거든, 근데 입은 뭐 할라고 이런 걸 돈 주고 사 그렇게 나가는 거라. **내가 정말 문득문득 재건 엄마 생각을 하면, 그래... 너두 불쌍한 걸...너두 불쌍한 걸...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닌데, 보면 그게 안 돼. 그 여자가 꼭 내 인생을 망친 거 같고...**(후략)

- 22회, 씬 35 엄마의 대사 中

영자는 재건 엄마 인생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만나면 이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이 들어 재건 엄마를 잘 대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쌀쌀맞게 대하고 나면 또 다시 마음이 안 좋고 불편해진다. 남편을 빼앗아 간 재건 엄마에 대한 영자의 마음은 이렇게 미움과 연민이 공존한다.

▶ 자식들 → 두철

사랑 때문에 가정을 버린 아버지 두철에 대한 자식들의 정서 또한 이중적이다. 그런데 세 자식들 중 미옥은 유난히 두철에 대한 미움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두철의 빈 자리로 인해 제일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은 바로 미옥이었다. 그래서 미옥은 두철만 보면 항상 불만이고 기분이 안 좋다. 할아버지 제삿날 기어이 재건이를 호적에 올렸다는 말을 들은 미옥은 재건이가 자신의 딸 민이와 같은 나이란 것을 아느냐며 두철에게 따진다.

4회 씬 44 거실

(전략)

미 옥: 어쩔 그렇게 뻔뻔스러우세요

아버지: 뭐야 (하고 술상 뒤엎는)

엄마, 고모, 재건모: (놀라고)

아버지: (서서) 그래, 자식아, 니 아버지 뻔뻔하다. 그래도 자식아, 니가 나 없음 이 세상 구경이라도 할 수 있었는 줄 알아!

고모부: (일어나, 아버지 잡고, 말리며) 갑시다, 형님, 가요

재 수: (아버지 팔 잡고) 집에 가세요, 오늘은 그만 가세요, 예

아버지: 이 집 내 집이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

미 옥: (일어나) 여기가 왜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이 자식이.....

고 모: (미옥 말리며) 방에 가자 그만하고 어

엄 마: (속상한 바닥의 반찬만 정리하는)

미 옥: 똑똑히 아세요, 이 집 명의 제 명의예요, 제가 대학 관두고, 갈비 집에서 죽어라 갈비 잘라가며 산 집이에요, 아버지 저 이 집 살 때 일 원 한 푼 안 보태주셨어요, 양재동 미스 박인지 흥인지하고 살림 차려서 돈 쓸데 많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중략)

미 옥: 다신 우리집 오지 말아요 이 집에 아버지 반기는 사람 하나 없어요. 우리 싫다고 나갔으면 그만이지, 왜 뺏하면 와요? 내가 호주제 없어도 내가 켈 먼저 하고 싶은 게 뭘 줄 아세요? 아버지 호적에서 나가는 거예요!

(후략)

호주제가 없어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아버지 호적에서 나가는 것이라는 미옥은 결혼식 때도 두철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도 자식들 중에서 두철에게 가장 호의적인 것은 아들 채수다. 채수는 아버지가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도, 감기에 걸려 기침하는 두철을 보고 그냥 가지 못한다.

20회, 씬 34 아버지의 포장마차

채수, 약 디밀고

아버지: ?

채 수: (안 보고) 받아요 팔 떨어져

아버지: (맘 짠한, 보는)

채 수: (소리치는) 뭐해요? 받으라니까.

아버지: (가만 보며) 니가, 그래도 내 자식은 자식이구나

채 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다면 벌써 그렸을 거예요. 근데 그래 봤자, 안 되니까, 소용없으니까... (하고, 한숨 쉬고, 약을 아버지 주머니에 넣어주며 물 많이 드시래요 찬물 말고 따뜻한 걸로. (하고, 가다가, 돌아보며, 버럭) 고맙다고도 안 하세요!!

(하략)

채수 말대로,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 봤자 그렇게는 안 된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다 그리고 아무리 미운 아버

지라도 감기에 걸려 기침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걱정돼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도 재수는 자신을 못 믿겠다며, 그래서 가족들을 따라 이민을 가겠다는 지니의 말에 상처 받고 술에 취해서는 두칠을 찾아가 화풀이를 한다. “지니 때문에 속상해서 술 마셨는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확 스쳐가면서 열불이 나서 왔다”며 “아버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아버지가 절 잘 키우셨어 봐요 개가 왜 날 버리겠느냐”며 모든 걸 두칠의 탓으로 돌린다. 이처럼 재수는 두칠을 위해 감기약을 사다주던 따뜻한 모습과 두칠을 원망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 자식들(미수는 제외) → 영자

영자에 대한 자식들의 주된 정서는 물론 사랑이다. 그런데, 가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모든 자식들이 그러하듯이 미옥과 재수는 영자를 원망하고 영자에게 화풀이를 한다. 영민의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홀대를 받고 돌아온 미옥은 영자에게 “엄마는 착한 게 아니라, 방관자”라면서 가슴에 피멍이 드는 말들을 쏟아낸다.

다른 엄마들 봐. 파출부를 하든 뭘 하든 죽어라 일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잖어. 땅장사다 집장사다 해서 어떻게든 돈 벌잖어. 그런데 엄마는 어땠어? 공장 가면 공장에서 쫓겨나고, 파출부 나가면 거기서 또 쫓겨나고... 덕분에 나는 대학도 못 다니고, 시집갈 때까지 갈비집에서 가위질하며 돈 벌었어! 내 또래 애들 전부 잘 나가는 대학생 되고, 멋진 옷 입고 다닐 때 나는 앞치마하고 갈비집에서 일했다구! 왜 미수만 유학까지 갔어야 돼 나는 뭐가 모자라서 갈비집에서 일했어야 돼! 내가 엄마 딸이지, 엄마 엄마야? 내가 왜 지금까지 엄마 생겔 책임져야 돼 나 영민씨 아버지 집에서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 엄마가 미웠어! 왜 날 이렇게 밖에 못 키웠어! 왜, 이렇게 밖에 못 키웠냐고, 왜.

재수가 두철에게 “절 잘 키우셨어 봐요”라고 원망하며 소리치듯, 미옥은 영자에게 “왜 날 이렇게 밖에 못 키웠느냐”고 소리친다. 두철은 밋고 원망스러워서 그런다지만, 미옥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영자에게 이렇게 잔인한 말들을 퍼부을 거라고 시청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말을 해서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적이 있었지’ 하면서 경험적으로 공감을 한다. 또 한편으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으면 그토록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럴까 싶어 정서적으로 공감한다.

‘사랑하는 영자씨’ 노래를 부르며 수시로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재수마저도 자신이 힘이 들 땐 영자에게 원망 섞인 말들을 내뱉는다. 인철이 바로 형 재식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 재수는 영자에게 “날 이 개 같은 세상에, 날 왜 낳냐 왜 낳아 내가 나달라고도 안했는데 날 왜 낳냐구? 왜!”라고 소리친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멍하게 있는 영자의 얼굴 위로 미옥의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흐르면서 시청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모르는 남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든가. 우리 자식들은 늘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그렇게 모든 원망을 엄마에게 풀어내고 있었다.(후략)” 이렇듯 자식들은 영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원망하고 상처를 주는 모순적인 언행을 한다.

▶ 미수와 재수 → 인철

인철이 재식을 죽인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미수와 재수는 인철에 대한 애증이 교차한다. 혼란에 빠진 미수는 인철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면서 미수는 인철에게 “그때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라는 말을 덧붙인다. 결국 미수는(그 누구보다 충격적이고 상처를 받았겠지만 사랑이란 감정으로 원망과 미

음을 점점 희석시킨다. 미수 못지않게 재수의 갈등 또한 크다

26회, 씬 56 골목

재수, 인철의 얼굴을 치는 인철 넘어지고, 입가에 피가 흐르는 재수 맘 아프지만 그런 인철을 일으켜 세워 보며, 눈가 그렇게 소리치는

재수: 내가 너를 왜 때리냐, 지금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너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지금 너를 왜 때리냐!

(중략) 시간 경과

인철,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든, 뉘 나간 듯 멍한 채 누워 있고, 재수, 눈물 흘리며 힘없이, 골목 벽에 기대 앉아 있는.

재수: (눈물 흐르는, 짐짓 차분하게) 니가 아니었으면 했어, 정말 니가 아니었으면...

(중략)

재수: 너를 찾아서 형이 맞은 만큼 반드시 패주겠다, 내가 얼마나 버르고 별렀는데... 그러면 시원하겠다, 기대하고 기대했었는데...

인철: ...

재수: 우리 누나 모르게 꺼져. (하고 일어나는)

인철: 재수야

재수: (보면)

인철: (뉘 나간 듯, 하늘만 보며) 정신 차리고 조심해 가라

재수: (가만 보다가, 비틀거리며 가는)

재수는 형을 죽인 범인을 찾아 “형이 맞은 만큼 반드시 패주겠다”고 버르고 별렀다. “그러면 시원하겠다, 기대하고 기대했었는데”, 재수는 그렇게 해도 시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형을 죽인 범인이 바로 자신이 형처럼 따르던, 그리고 미수 누나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인철이었기 때문이다.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들도록 맞아도 자신보다 재수를 걱정하며 “정신 차리고, 조심해 가라”고 말하는 인철이었기 때문이다

3.2. 착함(善)에 대한 동경

도덕과 윤리시간에 우리는 수도 없이 ‘선(善)’을 추구해야 한다고 교육 받았다. 그런 교육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선(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드라마의 작가 노희경 역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부분을 쓰는 게 자신의 글 쓰는 목적이면서 바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작가의 의식을 반영하듯, 드라마 속의 인물들도 선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영자 캐릭터에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영자는 재수가 ‘엔젤 엄마’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 합당할 정도로 아주 착하다. 그리고 착한 그녀는 못되고 나쁜 것을 경계하고 부정한다. 고모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재건 엄마 병수발을 들던 영자는,²⁰⁾ 식사를 준비하면서 재건 엄마 국그릇과 반찬에 침을 뱉는다. 그러더니 재건 엄마가 자신이 침을 뱉은 음식들을 맛있다고 하며 먹자 마음이 불편해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제 생각에 빠져 있던 영자는 김 서린 창가에 ‘나는 나쁜 년’이라고 쓰고는 눈가가 그렇게진다. 그리고는 고해성사라도 하듯 우식이 할머니에게 그 일을 고백한다.

7회, 씬 13 엄마의 방 안

(진략)

할머니: (엄마를 물끄러미 보며, 담담하게) 나쁜 년

엄 마: ?

할머니: 착한 척은 혼자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남의 밥에 침 뱉고, 다른 사
내놈 편지 읽으며 좋아라나 하고, 으이그, 음흉스런 년.

20) 아무리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 남편과 사는 여자의 병수발을 들지 않는다. 영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중략)

할머니: 너보다 니 남편이 백번 솔직하고 나 년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이년아. 남의 밥에 침이나 뺏고

엄 마: (속상해, 조금 격양된, 맘 아픈) 할머니가 내 입장 돼봐. 재건 엄마 그 여자한테 맞난 밥 해주고 싶은가? 더 솔직히 말하니까 내가 그 여자 머리칼을 죄 뜯어봐도 시원치 않아.

할머니: 이제야 본마음이 나오네, 이년아.

엄 마: (눈가 그렇함)

할머니: 야, 년아 그렇게 말이라도 속에 말을 하고 살어. 년아 미치기 싫으면

엄 마: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못됐다 그러잖어.**

할머니: 그럼 니들이 나처럼 당하고 살아봐라! 못됐다 소리가 나오나, 그래 버려.

엄 마: (눈가 그렇해, 인정받으려는) 할머니, 나 못된 거 아니지? 사람이 순간 그럴 수도 있지?

할머니: 그럼 년아.

(후략)

이처럼 영자는 사람들이 못됐다 그러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이 못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혼한 날, 미옥이 영자에게 이혼녀 된 소감을 묻자 영자는 “내가 진짜 이혼해줬으면, 니 아버지도 재건 엄마도 남 보기에든 몇몇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한다. 이혼 당하고서도 남편을 빼앗아 간 여자와 이혼한 남편까지 걱정해주는 게 그녀다. 그런 그녀이기에 “영자라면 아들을 죽인 인철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시청자들은 예상한다. 시청자들은 또한 영자를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다. 그리고 ‘그녀를 보면 나도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털어놓기도 한다.

영자뿐만 아니라 고모를 통해서도 선에 대한 동경이 엿보인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큰집에 보내고 돌아온 고모가 속상해 하자, 영자는 “우리 고모가 착해. 착해 갖고 할머니 데려다주고도 속이 상한다”며 위로한다. 그러자 고모는 “무, 무슨 말이야, 나, 나, 안 착해, 내, 내가 왜 착해! 나 독해! 나 속 안 상해 절대 안 상해”라면서 자신이 착하다는 말을 강하게 부정한다.

그런데 그 강한 부정 뒤에는 착하고 싶다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착하다. 곁에서 지켜보는 영자뿐만 아니라, 화면 밖에서 지켜보는 시청자도 그것을 다 안다. 그리고 고모의 시어머니인 우식이 할머니도 알고 있다. 그래서 큰아들 집에서 혼자 고모네 집으로 찾아온 우식이 할머니는 큰며느리를 욕하면서, 작은며느리인 고모를 보고는 “야 뭐라 뭐라 해도 너는 착한 거드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쁜 큰며느리에겐 욕을 하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한다. 시청자들 또한 고모와 할머니가 되어 큰며느리를 욕하고, 그러면서 생각한다. 착해야겠다고.

영자의 치매라는 ‘부정의 사건’²¹⁾ 앞에 놓인 자식들을 통해서도 선에 대한 동경을 보여준다. “자식들이 일류 사랑으로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혼자 깊은 병을 키우고 있던” 영자는 자식들의 “무심함에 복수라도 하듯” 그렇게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영자가 정신을 놓고, 자식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 이르러 이 드라마는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사슴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악쓰고 떼쓰면서 그렇게 온갖 진 다 빨아먹은” 엄마가

21)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착한 영자가 치매에 걸렸다는 의미에서 ‘부정’이다. 이저(W. Iser)는 텍스트의 수준에서 독자가 의미를 만드는 데 개입되는 두 가지 장소로 ‘공백(혹은 간극)’과 ‘부정’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 부정이란 이전에 받아들여진 가치나 규범 혹은 예상이 유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W. Iser, *Interaction between Text and Reader*, In S. R. Suleiman and I. Crosman, (Eds.), *The Reader in the Text: Essays on Audience and Interpreta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치매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드라마 속 ‘착한’ 자식들은 누구 하나 치매에 걸린 영자를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앞 다투어 영자를 돌보겠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엔 미옥과 영민이 영자를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간다. 영민은 서울에 전임강사 자리가 났는데도, 영자를 위해 그 자리를 마다하고 지방 전임강사로 간 것이다. 치매에 걸린 영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서도, 미옥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결코 효도할 수 없다고 부모에게 받은 빛만 갚아도 다행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갚고 싶었던 빛, 기분 좋게 갚자”고 말한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시골집 마당에서 엄마 얼굴을 씻겨주는 미수, 치약으로 엄마에게 장난치는 재수, 그리고 평상에 앉아 엄마의 아이 같은 모습을 보며 웃는 미옥과 영민의 모습을 담는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 위로 다음과 같은 미옥의 나레이션이 흐른다.

어쩌면 우리 자식들은, 전처럼 우리에게 밥을 해주는 엄마 빨래 해주는 엄마 순간순간 그리워하고, 아픈 엄마를 다시 귀찮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어머니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 30회 썸 43 미옥의 나레이션

미옥의 말처럼, 어쩌면 자식들은 엄마를 돌보다 힘들고 지쳐 아픈 엄마를 귀찮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드라마는 딱 여기까지, 행복한 순간까지만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미옥과 미수와 재수의 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하게 한다.

3.3. 연민과 동정 유발

선에 대한 동경 때문인지, 이 드라마에는 악인이 없다. 바람나서 딴 살

림 차린 아버지도, 아버지를 뺏어간 여자도, 피붙이를 죽인 원수도 결코 악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 연민과 동정이란 ‘정서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이성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들마저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자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부인에게 신장을 달라고 하는 뻔뻔스러운 두철. 그런 그가 수술을 앞두고 영자에게 고기를 사주고, 고기집 앞 담벼락에 기대 “개새끼, 개새끼, 김두철이 이 개새끼……” 하며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밉기만 하던 그가 조금은 불쌍하게 느껴진다.

술 취한 채수가 와서 모든 잘못은 아버지 탓이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갔을 때, 두철은 재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다 “참 근데 당신 이거 알아라. 채수가 그래도 자식들 세 놈 중에 날 쥔 좋아한다. 전번엔 나 감기 걸렸다고 약두 사주고 그랬어. 오늘은 뭐 지두 사내라고 술 한 잔 하고 기분이 옥해서 저러지만, 재 나 좋아해, 정말.” 아들이 와서 원망의 소리를 퍼붓고 가도 속상하지 않다며 짐짓 괜찮은 척 하면서 하는 말이 “재 나 좋아해”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재건 엄마는 두철이 불쌍하고 안됐다. 시청자들 또한 두철이 불쌍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를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만은 없게 된다. “자식한테 욕먹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못 견뎌. 근데 당신은 정말 잘 견뎌다”는 영자의 말처럼, 처자식을 버린 죄값으로 두철은 자식들의 외면이란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리고 그가 겪은 고통은 시청자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에 대한 미움을 없게 만든다.

솔직히 저는 바람 피고 이런 사람들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꽃아름>에서 처음 주현씨(두철) 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채수 없다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동정이라고 해야 하나, 이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

라구요(후략)

- 홍미라 님 시청 소감 中

전 오늘 (2회에서) 주현씨(두철)랑 방은희씨(재건 엄마) 사는 모습도 가슴 아팠어요. 보통 바람 피면 그 집은 잘 살고 그 여자는 못됐구 그런데, 그 집도 포장마차 하면서 어렵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밋기도 하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찢~했어요.(후략)

- 김지애 님 시청 소감 中

위의 시청 소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두철의 어려운 처지 또한 시청자들의 연민과 동정심을 유발한다. 재건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미수를 찾아가지만, 차마 돈을 달래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픈 재건 엄마를 대신해 밥을 해먹는 처량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다.

본처 가슴에 못 박는 첩이 누구냐! 하고 이를 갈았는데 막상 그쪽 여자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역시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나 봅니다.

- 박명신 님 시청 소감

두철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을 빼앗은 재건 엄마조차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그녀는 여리고 아프기까지 한테다가, 본성이 착하기까지 하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항상 죄인 같이 살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마디 대꾸도 못한다. 게다가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두철이 영자와 이혼하겠다고 법원에서 서류를 떼가지고 왔을 때, 재건 엄마는 “어보 그러지마.

형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아직 미수, 재수 결혼도 안 했잖아”라며 오히려 두칠을 말한다. 그런 재건 엄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저런 여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의아해 한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은 차마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다.

이 드라마에서는 피붙이를 죽인 원수인 인철마저도 나쁘게 그려지지 않는다. 인철은 자신의 실수로 친구 재식이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프다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살았다. 재식이 죽음으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친구들에게 시달리고, 전부인과 헤어졌다. 심지어는 고단한 그의 삶을 보상하듯 처음으로 다가온 진실한 사랑 미수와도 이별하게 된다.

재식의 죽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그것은 사고 현장에 함께 있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인철과 재식의 친구 민우의 말에서도 증명된다. “인철이 의도적으로 살의를 가지고 주먹으로 친 게 아니라 달려드는 재식을 민다는 게 그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가 주먹 쓰며 시는 게 싫어서” 인철은 아버지 업소를 맡게 해달라는 재식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랬더니 재식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도 미수가 찾아와 자신을 위해서 변명해 달라고 울부짖는데 인철은 아무 변명을 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철을 보면서 그 또한 피해자이며, 따라서 재식의 죽음으로 인해 그가 받은 고통은 어쩌면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처음에는 사람을 죽였으니 그만큼 고통을 당해보야 한다고 생각해서 덜 불쌍했는데, 어제 미수에게 기대 영영 우는 것과 재수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거 보고서는 많이 불쌍하단 생각이 들었다.

- 김보현 님 시청 소감 中

미수의 품에 안겨 영영 우는 인철의 모습을 보면서, 재수에게 잔뜩 얻

어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와중에도 자신보다 재수를 걱정하는 인철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연민의 감정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그가 너무 불쌍하다면서, 시청자들은 “이제 그만 재수와 가족들이 인철이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3.4. 용서와 화해 지향

텔레비전 드라마는 ‘현실과의 동화’와 동시에 ‘현실의 한계 극복’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의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대신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²²⁾ 이 드라마 역시 현실에서는 쉽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현실의 한계 극복’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작가 노희경은 “잘못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인간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으로 끌어주고 싶다”²³⁾고 이야기한 바 있다.

▶ 영자와 두칠

이혼한 날, 영자는 두칠에게 “여보, 나 당신 원망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왜 그런지 별로 안 밉다”면서 “당신은 나한테 좋은 애들 낳아준 것만으로 당신 할 거 다 한 거니까, 이제 더는 미안해하지도 마요”라고 말한다. 이에 두칠은 눈가가 붉어지면서 “그래도 미안하다”며, “살다보면 재수 말고, 영민이 말고, 나처럼 나이든 남자 필요할 일 생길 때 있다. 그때 연락해, 내 금방 달려갈 테니까” 한다. 역설적이게도 영자와 두칠은 이혼을 하고서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22) 허윤무, 「韓國 텔레비전 드라마의 寫實的 表現에 대한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5면.

23) 박준희, 「TV드라마 작가 노희경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26 면

친구가 된다.

자기를 버린 남편한테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엄마를 보면서, 난 참 그동안 세상을 미워하며 살았구나,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는데,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꽃만큼만 바라봐 주고, 가까이 해주고, 사랑해 준다면 세상엔 용서 안 될 일도 용서 못할 사람도 없겠구나 싶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 이승연 님 시청 소감 中

▶ 두칠과 자식들

화해와 용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던 두 사람, 두칠과 미옥마저도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28회, 씬 28 마트 안

(진략)

미 옥: (생선 잘라 아버지 주면)

아버지: 가격표 안 붙여

진우, 제안: 왜요, 이거 돈 주시고 사가시게요

아버지: 당연하지 자식아. 장사 집에 와서 돈 안 주고 물건 가져가면 그게 도둑놈이지 손님이나?

미 옥: 그냥 가져가세요

아버지: 싫어, 가격표 붙여. 내가 남 팔아주느니 너 팔아주는 게 낫지 싫어, 온 거지, 생선 쫑으로 얻어갈라고 온 거 아냐. 가격표 붙여

미 옥: (조금 짜증스런)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버지: (보면)

미 옥: 아버지 맘만 편하면 다예요, 내 맘은 어찌고요. 아버지한테 생선 팔아먹는 내 맘은 어찌고요.(하고, 생선대만 보며, 치우는)

아버지: (작게 웃으며) 그런가 그게...(하고, 받는)

미 옥: (생선대만 보며, 진우에게) 어제 팔다 남은 콩치도 좀 드려

진 우: (두 사람 보며) 어... 누나...(하고, 콩치를 담는)

아버지: (미옥 물끄러미 보며) 미옥아

미 옥: (안 보고) 가끔 오세요. 생선은 물리게 드릴 테니까

아버지: (맘 째해지느

(후략

위에서 진우가 두칠과 미옥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두 사람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생선을 그냥 가져가던 두칠이 가격표를 붙이라는 것도 그렇고, 두칠만 보면 으르렁대던 미옥이 어제 팔다 남은 콩치까지 챙겨주면서 “가끔 오세요. 생선은 물리게 드릴 테니까”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다. 이를 통해 두칠과 미옥 또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그것이 실현된다.

30회, 씬 34 엄마의 거실

(전략

아버지: 그러니까, 옆에 위험한 거나 좀 치워주고, 하잔 대로 놔두면, 그러면... 내가 뭐 알고 하는 소리 아니고, 그냥 그런 거 같다고...(하고, 두 마리 학 접은 걸 미수에게 주며) 나중에 니 엄마 쥐라 갖고 놀게.

미 수: (학을 손바닥에 받고, 고개 숙여 그 학만 보고, 맘 째해지며) 학이 이쁘네요.

아버지: (작게 웃으며, 좋은 그레, 다행이네 그레 이빠서 (창가 보고

미 옥: (그런 아버지 보다가) 차 드실래요?

아버지: (보면)

미 옥: 차 드릴게요. 유자차 괜찮으시죠 (하고, 일어나 주방으로 가고

아버지: (작게 서글프게 웃다가, 다시 창 보는, 애들이 고마운

두철을 향해 다신 우리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던 미옥이 이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철에게 차를 권한다. 미옥뿐만 아니라 두철에게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미수도 변화를 보인다. 두철이 접어 준 종이학 두 개를 보면서 ‘예쁘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다.

▶미수와 인철

이렇게 가족들은 서로를 버릴 수 없기에 그냥 품어버린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인철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용서는 하되, 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노희경 작가의 말처럼 “용서와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기억만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미수는 인철을 그냥 떠나보낸다.

28회, 씬 15 인철의 별장 거실 밤

(전략)

미수: (눈가 그렇해, 애써 담담하게) 장인철, 나 너랑 못 떠날 거 같애.

인철: (술잔만 보며, 맘 아픈, 천천히) 알아.

미수: (눈가 그렇해, 인철을 따뜻하게 보며)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란 것도 알아?

인철: (고개 끄덕이느) 알아.

(중략)

미수: 장인철 잊지마, 그건 사고였고, 니가 충분히 아플 만큼 아팠다는 거
잊지마.

인철: (영영 우는)

미수: 잊지마. 잊지마. 너는 더 이상 아플 필요 없다는 거 잊지마. 제발 잊
지마.

인철: (영영대고 우는)

미수는 인철에게 오빠 재식이 죽은 것은 사고였다고, 충분히 아플 만큼 아팠으니 더 이상 아플 필요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다. 미수는

그렇게 인철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인철이 간직해온 상처까지 치유해준다. 이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미수의 빨개진 코끝을 보며’, ‘인철의 영영 울어대는 모습을 보며’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숨죽여 혼자만 아팠는데, 미수의 품에서 어린애처럼 우네요. 그 울음으로 상처가 많이 치유됐으면 좋겠어요”(박은숙님)라고 바란다.

영자는 말한다.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은 없어 용설 안 할라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용설 할라 그래봐, 왜 안 돼 그게 되지”라고 이 드라마는 영자를 통해 ‘화해와 용서’, 나아가 ‘진정한 사랑’을 말한다. 그 사랑은 처 자식을 버린 아버지를 껴안는 사랑이며, 남편을 뺏어간 여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콩팥까지 내주는 사랑이며, 피불이를 죽인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사랑이다. 이런 위대한 사랑은 모두 다름 아닌 한 가정의 어머니의 사랑)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 드라마는 말하고 있다.

더불어 이 드라마는 가족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훗날 미수가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입 맞추고, 포옹하고, 데이트 하는 즐거움도 컸지만, 엄마와 형제들과 신나게 장난치며 웃고 떠들던 그 즐거움도 참으로 큰 것이었다고. 재수도 나도 그렇다고 했다.

- 18회 썸 43 미옥의 나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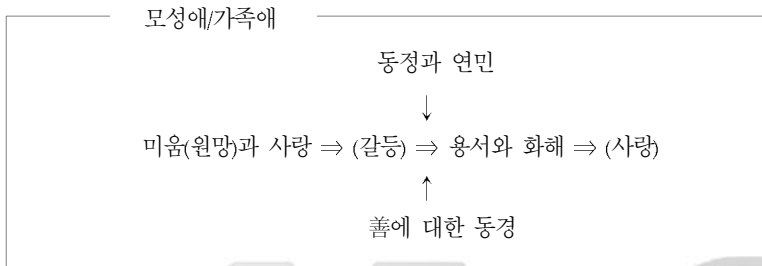
가족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는 요즘, 끈끈한 가족애로 무장한 이들 가족의 모습은 어찌 보면 매우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이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 항상 가족애를 꿈꾸고 있는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가족의 모습에 정서적으로 공감한다. TV 드라마는 “그 사회 그 시기 구성원의 ‘속내’ 깊은 곳의 진정한 정서 구조를 표현”²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리얼리즘을 경험한 시청자들은 나아가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가족들을 돌아보게 된다.

24) 정영희,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196 면

4. 나오며

지금까지 TV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의 정서적 리얼리즘에 대해 정서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드라마는 환유적 인물 관계 속에서 미움(원망)과 사랑의 혼재, 후에 대한 동경, 동정과 연민 유발, 화해와 용서 지향의 정서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정서 구조를 아우르면서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주된 정서 구조로 ‘모성애에 대한 동경’과 ‘가족애에 대한 향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꽃보다 아름다워>의 정서 구조]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인물들을 따라 위와 같은 정서 구조를 형성하면서 정서적 리얼리즘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시청자는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드라마는 개인주의와 소외현상이 팽배한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모성애와 가족애를 환기시켜 준다. 그럼으로써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온과 위안을 얻고, 나아가 자신의 삶과 가족을 반추하게 해준다. 그 결과 많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거나, ‘어머니 생

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고백한다. 다시 말해 많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시도한 것이다. 이처럼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긍정적인 호응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볼 때, <꽃보다 아름다워>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을 쓰면서 느낀 한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먼저 윌리엄스의 '정서 구조' 개념은 서로 구별되는 세대를 논하기에 적합한 것이는데, 본고에서는 <꽃보다 아름다워> 시청자들을 세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데 아울러 살펴보았다. 한 드라마를 공유한 시청자들을 세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앞으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다. 다음으로 정서적 리얼리즘은 수용자 반응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시청자의 정서 구조를 분석하기 보다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정서 구조를 해석하는 것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이는 필자가 텍스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텍스트 분석과 수용자 반응 분석을 보다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TV드라마의 현실감, 정서적 리얼리즘, 정서 구조, <꽃보다 아름다워>, 환유적 인물관계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철규·기민수 연출, KBS 수목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영상물
 노희경 극본, KBS 수목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 대본
 <꽃보다 아름다워> 드라마 홈페이지(<http://bravomom.kbs.co.kr>)

2. 단행본

글렌 크리버 외, 박인규 옮김, 『텔레비전 장르의 이해』, 산해, 2004.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0.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예술론』, 나남출판, 1994.
 정영희,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주창윤, 『텔레비전 드라마; 장르·미학·해독』, 문경, 2005.
 레이몬드 윌리엄스, 이일환 옮김, 『理念과 文學Marxism and Literature』, 문학과지성사, 1982.
 Ien Ang, Translated by Della Couling,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and New-York, 1985.

3. 논문 및 신문·잡지 기사

박준희, 「TV드라마 작가 노회경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4.
 백은하, 「노회경의 <꽃보다 아름다워>가 그리는 속상한 가족의 유쾌한 사랑법」, 『씨네 21』 No.445, 2004.3.30.
 서병기, 「노회경 드라마의 매력은」, 『스포츠서울』 2004.4.13.
 손병우, 「최근 텔레비전 드라마의 정서의 한 흐름」, 『외국문학』 1995년 봄 127~143면
 윤석진, 「TV드라마의 현실성(reality) 확보 방식 고찰」, 『한국극예술연구』제 21집 한국극예술학회, 2005, 317~355면
 이도흠, 「예술텍스트에서 현실의 재현과 진실 사이의 거리 문제」, 한국언어문화학회 발표 자료집 『문화변동기, 인문학의 새로운 좌표』, 2004년 봄, 40~63면
 이수진, 「바람 잘 날 없는 가족 아픔에도 향기는 있다」, 『문화일보』, 2004.4.14.
 인터뷰, 「‘사랑은 있다’드라마 <바보같은 사랑>의 작가 노회경과의 만남」, 『열린사회』, 열린사회시민연합, 2000년 9·10월호
 허윤무, 「韓國 텔레비전 드라마의 寫實的 表現에 대한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TV Drama <More Beautiful than a Flower> - Focusing on Emotional Realism

Baek, Kyung-seon

<More beautiful than a flower> is the title of the TV drama which was televised in 30 parts from Jan 1st, 2004 to Apr 14th by KBS 2TV. This drama showed the realities of life filled with troubles and shabby things, and aroused the sympathy of the TV audiences. In other words, the TV audiences considered the <More beautiful than a flower> as a realistic drama.

It's important to make the TV audiences feel the drama is realistic. Because most TV audiences are involved in the drama when they feel the drama is realistic.

But the reality of drama is related with emotions. About this, on the study of <Dallas> - U.S.A drama - Jen Ang insists on the concept of 'Emotional Realism'. In her opinion what the emotional realism is the TV audiences feel the drama is unrealistic at the denotative level but they take that as real at the connotative level. And above all the emotional realism is caused by 'Structure of Feeling' drama give rise to.

It was Raymond Williams who used the concept of 'Structure of Feeling' for the first time. The term, structure of feeling that Williams says means an ongoing system of meaning and value that whole members of a society in certain time feel and experience in common. Based on Williams' definition, this article judges the structure of feeling as 'contact point of TV Drama and viewers who shared it as well as real society, that is the universal meaning and value system as the ground of their communication and sympathy.' In addition, this article judges 'real experience of viewers by endowing order and understanding it subjectively through structure of feeling' as the emotional realism.

Based on these premises, this article studies on what structure of feeling the emotional realism experienced in <More beautiful than a flower> stems from. This article, to make this, first analyzed the story structure and characters relation, and then analyzed the structure of feeling in the drama. As a result, it

was proved that this drama formed a structure of feeling of hatred(resentment) and love, longing for the good, sympathy and compassion,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in metonymical relationship of characters. Also, there were 'longing for the maternity' and 'nostalgia for family love' in every aspect of this drama all over those structure of feeling.

Meanwhile, this drama brought family communication by awakening the viewers who become more and more indifferent in modern society full of individualism and estrangement to warm maternal affection and family love. As such, the positive response in social aspect can be another meaning of this drama.

Key Words : the reality of TV drama, emotional realism, structure of feeling, <More beautiful than a flower>, metonymical relationship of characters

접 수 일 : 2006년 2월 27일
심사기간 : 2006년 3월 1~ 25일
게재결정 : 2006년 4월 7일(편집위원회)

K C I